응합 FOCUS





융합 FOCUS



발행일 2019년 10월 28일

발행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

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

Tel. 02-958-4980 http://crpc.kist.re.kr

펴낸곳 주식회사 동진문화사 Tel. 02-2269-4783

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아세안(ASEAN)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

권영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

01

아세안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: 동남아 국가 연합)

- ◆ '67년 8월, 아세안 창설 5개국*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. 아세안 창립 선언을 발표
 - *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
 - 동남아 지역 경제성장, 사회 및 문화 발전, 지역 안보, 국제정세 급변 등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의해 결성
 - 현재는 총 10개국**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신흥시장으로 급성장 ** 창설 5개국 + 라오스, 미얀마, 베트남, 브루나이, 캄보디아
 - '10년부터 '19년까지 평균 5.7%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3.7%를 상회

표 1. (2018년 기준)아세안 10개국 인구, GDP, 실업률(출처: UN, IMF)

국가	인구(천 명)	GDP(억 달러)	실업률(%)
라오스	7,061	181.20	-
말레이시아	31,528	3,585.79	3.325
미얀마	53,708	686.68	4.000(예상)
베트남	95,546	2,412.72	2.210
브루나이	429	135.68	9.316
싱가포르	5,758	3,641.39	2.100
인도네시아	267,671	10,224.54	5.340
 캄보디아	16,250	244.44	-
태국	69,428	5,049.28	1.200
필리핀	106,651	3,309.10	5.325
총합	654,030	29,470.82	

- ◆ 우리나라는 '91년부터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승격하여 올해 대화 관계 30주년 맞이
 -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술, 문화예술, 인적 교류 등 협력 수준 제고 목표

표 2. (2018년 기준)한-아세안 경제 관계(출처: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)

교역	1,598.6억 달러(약 185조 6천억 원) (흑자 406.2억 달러, 수출 1,002.4억 달러, 수입 596.2억 달러)		
투자	61.3억 달러(약 7조 1,170억 원)		
인프라	119억 달러(약 13조 8천억 원)		
인적교류	연간 약 1,013만 명 수준		

02 디지털 경제

- ▲ 정보통신기술(ICT)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발생
 -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속도는 다르지만, 국가 경제 규모 및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음
 -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

03

아세안,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- 중소기업 중심으로

- ** 꾸준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 목표
 - '30년까지 미국, 중국, EU에 이어 세계 4위 규모 경제권 발돋움 목표
 - '25년까지 연평균 5%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, 디지털 경제 부문은 6.4배* 규모로 확대 예상
 - * '15년 310억 달러(약 36조 원) → '25년 1,970억 달러(약 228조 7천억 원)
 - ('18년 기준)디지털 경제 규모는 GDP의 7% 수준이며 이는 미국 35%, EU-5** 27%, 중국 16%에 비해 저조한 수준
 - **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을 지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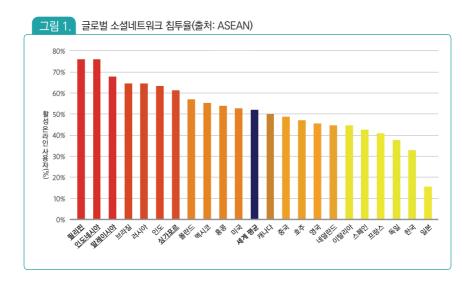
- ▲ 디지털 인프라 중 광대역 통신망의 개선 ·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화 급속 진행
 - 싱가포르('16)와 브루나이('18)는 100명당 이동통신 보급률 100% 돌파
 -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100% 및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미얀마, 라오스는 50%에 근접
- 🚰 특히, 아세안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필수적
 - 아세안 회원국 내 사업체의 95~99%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며,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
 - 하지만, GDP의 30~53%, 수출의 10~30%가량만 담당하고 있는 상황
 - 베인앤컴퍼니의 '18년 조사결과* 75%의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한 기회를 찾고 싶어 하지만, 16%만이 디지털 기술을 최대치로 활용
 - * 'Advancing Towards ASEAN Digital Integration' 보고서

표 3. 아세안 회원국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레벨 조사결과(출처: Bain & Co.)

디지털화 레벨	디지털 툴	디지털화율(%)
기초(Basic)	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, 이메일, 왓츠앱(WhatsApp), 개인컴퓨터, 이동전화	56%
중간(Intermediate)	웹사이트, 소셜미디어, 이커머스 사이트, 태블릿, 프린터	34%
고급(Advanced)	ERP, CRM, 분석툴, 빅데이터, 자동화, 온라인 비즈니스, 스캐너, 카드리더기, 중앙서버, 이미징 장치	1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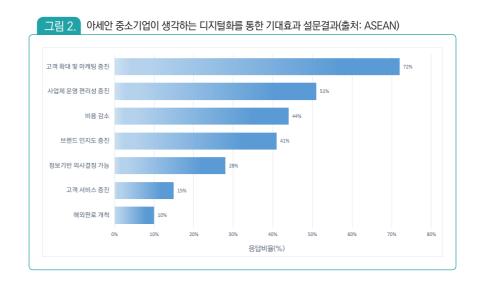
04 디지털화의 혜택

- ◆ 아세안 인구의 60%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, 디지털 환경에 익숙
 - 특히, 이동통신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 추세에 따라 점차 많은 인구가 디지털 환경 노출 증가
 -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침투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



♪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으로 시장 확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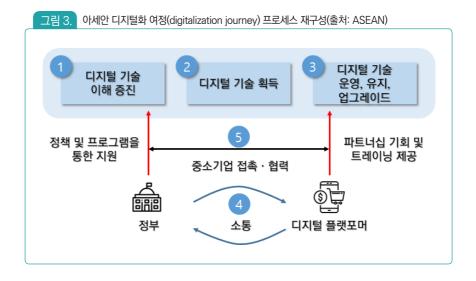
-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정적 거래처와 고객만으로 기업체 유지
-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 확대 및 마케팅 증진, 사업체 운영 편리성 증진 등을 긍정적 효과로 기대



05

아세안의 디지털화를 위한 여정

- ◆ 디지털 경제의 혜택이 확실함에도 불구, 디지털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
 - 아세안 역시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 기술 발전 및 디지털화를 노력하지만, 여러 걸림돌로 인해 진척에 어려움 호소
- □ 디지털화 여정(Digitalization journey)은 아세안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
 - 아세안은 총 세 단계로 디지털화 여정 정의; 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,
 - ② 디지털 기술 획득, ③ 디지털 기술 운영, 유지, 업그레이드
 - 이를 위해 5대 애로 사항 해소 필요: ① 디지털화에 대한 제한적 지식,
 - ② 사업 프로세스 변화 주저, ③ 디지털 기술 친화 인력 부족,
 - ④ 정부-디지털 플랫포머(platformer) 협력, ⑤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부족
- 아세안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화 여정을 완성할 예정



06결론 및 시사점

- ▲ 한단한 경제성장을 뒷받침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세계 4위 규모 경제권 도약 목표
 - 아세안 인구의 60%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,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증가 예상
 -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탄탄한 산업구조 확보 노력
- ▲ 아세안 회원국 간 공통된 목표로 인해 빠른 디지털화 및 디지털 경제 확대 예상
 - 「아세안 경제청사진 2025」, 「아세안 연결성 마스터플랜 2025」 보고서를 통해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 추진 확립
- ♪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추진 의지와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통해 협력 방안 모색 가능
 - -특히, 신남방 주요정책 중 '상생번영'을 위한 정책을 바탕으로 한-아세안 간 신산업분야 공동협력 추진 가능
 - 표 4. 신남방주요정책 중 상생번영 공동체 5대 정책(출처: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))

상생번영 공동체

무역 ·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

• 아세안 역내 추진 중인 지역 및 다자 ·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

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

• 교통 · 에너지 · 수자원 등 중점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지원

중소 · 중견 기업의 시장진출과 상호 교류 활동 지원

•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및 농 · 수산(K-Food, K-Seafood), 미용(K-Beauty)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

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

•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및 한 · 아세안 · 인도 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· 신산업 협력

신남방 각 국가별 맞춤형 협력

- 각 국의 협력수요에 따라 농 · 수산업, 자동차 · 철강 · 석유화학 등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
- ICT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여러 DT 관련 기업 및 노하우 수출 가능 예상

참고자료

- 1.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, 2019.10.23., "Study on MSMEs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in ASEAN", https://asean.org/?static_post=study-msmes-participation-digital-economy-asean
- Bain & Co., "Advancing Towards ASEAN Digital Integration", https:// www.bain.com/contentassets/37a730c1f0494b7b8dac3002fde0a900/report_a dvancing_towards_asean_digital_integration.pdf
- 3. International Monetary Fund, "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, October 2019", https://www.imf.org/external/pubs/ft/weo/2019/02/weodata/
- 4. Prime Minister's office Singapore, "PM Lee Hsien Loong at the 27th World Economic Forum on ASEAN in Hanoi, Vietnam", https://www.pmo.gov.sg/ newsroom/pm-lee-hsien-loong-27th-world-economic-forum-asean-hanoivietnam
- United Nations, "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", https://population.un.org/ wpp/DataQuery/
- 6.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, "주요정책", http://www.nsp.go.kr/policy/policy02Page.do
- 7.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연구위원, 2017.4.12., "POST China,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"

